인사안 만장일치 통과…승려복지 · 선거법 개정도

220차 중앙종회, 어떤 안건 처리됐나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3일 제220차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세입세출결산안과 인사안, 법개정안을 비롯한 18개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제적의원 78명 중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20차 임시종회를 개원했다. 이날 종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국제회의장이 아닌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됐으며, 의원 전원은 발열체크를 거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본회의에 입장했다. 특히 처음으로 안건 상정에 앞서 입정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수행납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고 종무를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는 해가 되길 기대하며 의원 스님들께서도 수행정진의 원력으로 국가적 종단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도 개회사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단이 나아갈 길,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반드시 활로가 열릴 것"이라며 "위법망구의 마음으로 중앙종회 본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스님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220차 임시회는 인사안과 종법 제개정의 건, 2020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비롯한 18개 안건과 긴급상정된 1개 안건을 일괄 처리한 후 폐회했다.

◇호계원장 · 포교원장 등 인사안 처리

이날 종회에서는 4월 14일 임기만료되는 정관 · 암도 · 근일 스님의 후임으로, 만당 스님 외 5인 의원이 추천한 백양사 성오 스님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또 신임 호계원장에는 보광 스님이, 포교원장에는 범해 스님을 선출했다.

중앙종회는 3월 26일 임기만료된 호계원장 무상 스님의 후임에, 현민 스님 외 10인 의원 추천을 받은 보광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보광 스님은 "호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공명정대한 호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3월 14일 임기만료된 前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후임에는 범해 스님이 선출됐다. 범해 스님은 총무원장 추천으로 포교원장 후보에 올랐으며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차기 포교원장에 확정됐다. 범해 스님은 "포교를 더욱 활성화하라는 종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교가 살아나야 종단의 생명력도 살아날 수 있다. 부처님법의 수승함을 믿고 자비를 실천하며 많은 이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전법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종회는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에 추천된 대원, 원명, 도신, 대오 스님과 초심호계의원에 추천된 양관, 법진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화평, 우하 스님이 선출됐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22인과 명사 법계 특별전형 7인 스님에 대한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성조, 각수, 월성, 법정, 옹산, 법등, 혜창, 법성, 도진, 철형, 효경, 경선, 정여, 지안, 도법, 성오, 진공, 명공, 현고, 무착, 정원, 의정 스님 등 대종사 특별전형자 전원에 대해 만장일치 동의했다. 재희, 운달, 대웅, 일법, 도문, 영운, 보각 스님 등 명사 법계 특별전형자 7인에 대한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종사 · 명사는 법계법 제12조에 따라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승려복지 · 선거법 등 제개정안 통과

이번 종회에서는 선암사 특별법 제정안 뿐 아니라 승려복지 재원 확보 방안을 확대하는 취지의 승려복지법 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승려복지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 · 사미니도 승려복지 혜택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승려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 건물 등을 매입 ·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목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기금을 기존 용도 외에도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승려복지회 의결과 총무원 종무회의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승려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종단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된 승려복지기금을 단순히 예치 · 운영하는 것을 넘어 복지시설 건립 및 부동산 매입을 통한 수익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승려복지기금이 목적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승려복지기금은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건물이나 토지 매입은 목적사업을 벗어난 일종의 투자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수 종회의원 스님은 "승려복지를 위한 목적임을 특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다"며 "오히려 그동안 우리 종단이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사찰 재정이 소실되거나 재정 운영에 뒤처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지출의 목적을 승려복지 목적으로 특정하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정안은 승려복지기금의 수혜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 · 사미니 스님도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납부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우봉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후보자 등록 기간은 22일에서 21일로, 이의신청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변경된다.

한편 중앙종회의원 법일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교구본사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철회됐다.

◇눈길 끈 종책질의

220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출가자 감소추세에 따른 확대 방안을 비롯해 역량강화, 해외포교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건의 종책질의가 이어졌다. 이 중에서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해외특별교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범 스님은 "2017년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치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업무 일원화를 꾀할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등 전담부서가 부재해 해외유학 및 수행승, 소임자로 파견된 수백명의 스님과 100여개 사찰에 대한 종단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한 데 이어,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설치를 위한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설치와 사무국 인력 확보를 신속히 완료하고 해외사찰 지원에 대한 종무행정 체계 개선과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교구 사무국 운영과 종무행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사무국 운영 지원과 종무인력 지원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후반기 특위 구성 결의

종헌개정 ·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대한불교진흥원 관계개선 특위도 구성된다. 종법제개정특위는 총무분과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종헌종법의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종헌종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특히 종도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성안해 본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종법제개정특위는 호산 스님을 위원장으로 13인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 구성은 종책모임 대표 및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대한불교진흥원 관계개선 특위는 현재 종단과 관계가 소원해진 진흥원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효림 스님을 위원장으로 진흥원과 인연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11인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0월까지,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회는 호법부에 해종행위자 징계절차의 집행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213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해종행위조사특위를 구성해 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대한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해종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1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해당자에 대해 호법부에 징계절차를 요구키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앙종회는 216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해종행위자에 대한 호법부 징계를 조속한 시일 내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화 지지성명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날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 및 군부의 폭력진압 반대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저항이 눈물겹다"며 "미얀마에 평화의 봄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얀마 국민이 군부의 탄압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한다"며 △미얀마 국민들을 향한 군부의 폭력 즉각 중단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 적극지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요청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불교도들의 기도와 동참을 촉구했다.

◇정운 스님 징계안 철회

첫 안건으로 상정된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은 당사자인 정운 스님이 신상발언을 통해 참회의사를 밝힌 데 따라, 최종 철회키로 했다. 정운 스님은 현직 중앙종회의원 신분으로 본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칼럼을 작성해 총무원장 제출로 징계안이 상정됐다.

정운 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크나큰 구업을 지었다"고 참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님은 "지난해 논란 이후 자숙과 참회의 기간을 가졌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선처를 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교닷컴, 해종언론 조치 해제 가결

조계종 중앙종회에 의해 해종언론으로 지정된 불교닷컴이 임시회 당일 의장단을 예방하고 참회의 뜻을 밝히며 해종언론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중앙종회는 불교닷컴의 종단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결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논의 결과 종단 비판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명예훼손 당사자에 대한 사과, 참회문 게재,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등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해종언론 조치 해제를 가결했다. 또 해종행위를 지속할 경우 다시 해종언론으로 영구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상정된 안건인 만큼, 종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 스님들은 애초 중앙종회가 불교닷컴을 해종언론으로 지정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며 "그동안 종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기사로 종단 위상과 대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논란을 야기한 불교닷컴 참회문 하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갑작스레 논의가 시작돼 당황스럽다" "종단 차원의 조치였던 만큼 종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야 한다"는 등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종회가 충분한 논의없이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해종언론 지정 해제를 가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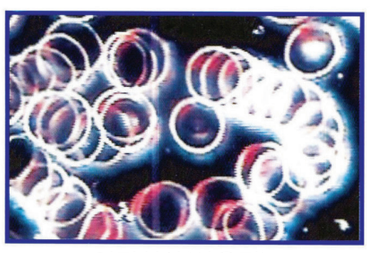
국민건강 · 인류건강을 위한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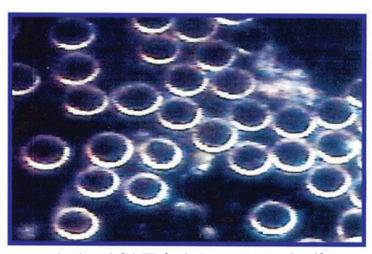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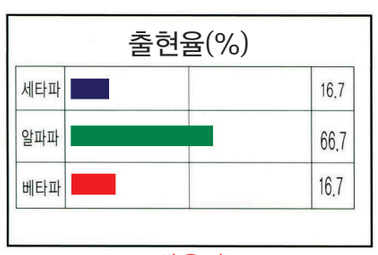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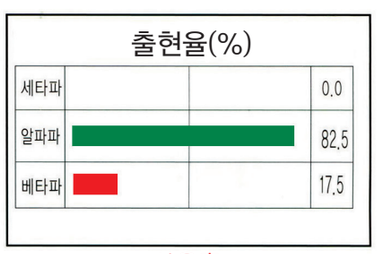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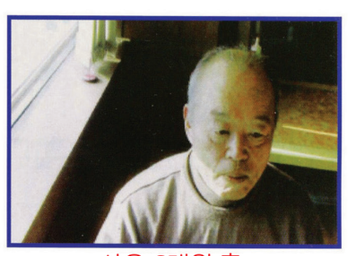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